

한일 경제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선교전략 변화 고찰

이 선복 1)

I. 서론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은 전례 없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이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또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에 한국의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우대조치 배제를 발표하며 갈등이 격화되었다. 또 양국의 갈등은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져 경제는 물론 민간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과 선교비전을 나누는 제1회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Hesed Asia for Japan) 포럼이 8월 15일에 포항에서 열렸다. 과거 역사문제를 포함, 양국의 화해를 도모하는 논제가 토론되고 본 연구자도 '한일 경제협력과 선교'를 주제로 발표에 참여하였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1989년까지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며 세계 제2위 GDP국가로 올라섰다. 그러나 헤이세이(平成) 왕이 즉위한 1989년을 기점으로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장기간 경기침체와 불황이 계속되었다.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고 물가상승이 멈추는 등 소위 '잃어버린 10년과 20년(失われた10年と20年)' 현상이 발생하였다. 자연히 한국경제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1990년 당시 일본의 25%에 불과하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최근 70% 수준에 이르게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변화가 한일의 선교 교류 및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기독교 동향을 살펴본 후 1990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경제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이들 변화가 선교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이하, 제2장에서는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 통계자료(1990-2017년)를 비교·분석하여 양국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위 분석결과를 기초로 일본선교에 필요한 전략의 변화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이후 28년간에 걸쳐 통계자료를 분석 검토함은 물론 한국과의 비교를 도모하고, 이를 기독교 선교의 논점과 연결, 논의를 발전시키고 선교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에 의미가 있다²⁾. 2019년 일본은 헤이세이 천황의 30년 역사를 뒤로하고 나루히토가 제126대 천황으로 즉위함으로 신 레이와

1) 동서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sblee6@hanmail.net

2) 실제로 연구자는 2006년 3월에 재직하는 대학에 일본어채플을 개설, 현재까지 봉사로 섬기고 있다. 동서대는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미션스쿨로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6학기 동안 채플을 이수하도록 정책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어 채플에 이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언어 영역별 채플을 운영하고 있다. 2019-2학기 일본어채플의 수강자는 약300명이다.

(令和)시대를 열었다. 또 정치적으로는 아베신조 수상이 아베노믹스(Abenomics)를 기조로 강력한 일본을 만들고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금후 한일관계가 주목되기도 한다.

II.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현황

2-1 일본의 기독교 전래와 개신교 역사

일본은 1549년 예수회소속 포르투갈 선교사인 프란시스코 자비에르(1506-1552)가 규슈에 들어와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1568년에 노부나가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여 초기 순조롭게 복음이 전해졌다. 1613년에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금교령을 발표하기까지 인구 1천5백만 중 80만명(5.3%)이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부흥하였다. 그러나 그 후 박해가 심해지고 1587년 선교사 추방령이 발표되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 1596년에는 상 필리페호 사건으로 나가사키에서 26명의 성인이 순교하였다. 1613년에는 토쿠가와(徳川) 막부가 기독교 금지를 결의하고 80만명의 신자들에게 비극이 초래되었다. 1622년에 55명이 나가사키에서 처형당하고 20만-30만명이 순교했다. ‘금교령’의 탄압에 신자들이 단결하여 1637년에는 규슈에서 ‘시마바라(島原)의 난’이 일어났다³⁾. 아마쿠사시로(天草四郎)라 하는 16세의 소년을 중심으로 농민과 사무라이 3만7천명의 신자가 모여 1년이상 12만명의 토쿠가와 막부군대와 싸워 전원 순교하였다. 1639년 토쿠가와 막부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국교를 단절, 쇄국령을 내리고 300년간 기독교를 박해하였다(이선복,2007).

일본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1859년으로 미국 감독교회(성공회), 개혁교회(칼뱅파), 장로교회(칼뱅파) 선교사가 나가사키와 카나가와에 상륙하고 외국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1872년 요코하마에 개신교 최초의 일본기독교성공회가 설립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초기 기독교 금지하는 정책을 하며, 1868년에 기리시탄 사교 출입금지(支丹邪宗門禁制) 팻말을 내걸었으나 국제적 여론에 밀려 1873년에 철거하였다.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포교가 묵인된 것이다. 루터파는 1892년 미국계 복음루터교회를 조직하였다. 칼뱅파는 개신교에서는 가장 빨리 전도를 시작하여 일본기독교공회를 설립, 1877년에 일본장로공회와 연합하여 일본기독교일치교회를 설립하고 1890년에 일본기독교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회중파는 미국 보드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가 진행되다 1878년 간사이(関西) 9공회가 일본기독교전도회사를 설립, 1886년에 일본조합기독교회가 결성되었다. 침례파는 미국의 고블과 브라운이 전도를 시작, 1873년 요코하마에 제일침례교회를 설립하였다. 감리교회는 1873년에 미국 감리감독교회와 캐나다 감리교선교교회가 전도를 시작, 1907년에 일본감리교회가 결성되었다(일본종교연감,2018).

현재 일본 기독교는 일본기독교연합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NCC)가 있다. 일본기독교연합회는 가톨릭 및 개신교 단체로 법인사무의 향상과 연수, 친분을 도모하고, 헌법에 정하는 신교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근거하여 전체 기독교회의 신앙 양심의 자유와 공통 이익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익재단법인 일본종교연맹의 협찬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기독교협의회는 개신교 교회(교단)와 기독교 관계단체에 의해 구성, 가맹단체의 기독교로서의 일치와 평화, 인권 문제 등에 힘쓰고 있다. 전후 성공회 등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에큐메니컬 운

3) 五野井隆史[2006]pp.218-223.

동은 1960년대가 되면 제2바티칸 공회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그 일환으로 1978년에 가톨릭과 개신교의 협력으로 『신약성서 공동번역』을 간행하고, 1987년에는 구약성서를 포함한 『성경 신공동역』이 간행되었다(일본종교연감,2018).

<표1> 기독교 신자수의 추이



* 출처 : 도쿄기독교대학 국제선교센터 일본선교 리서치(2019), p.9

그리고 일본 개신교 신자의 추이를 보면 1948년에 약 20만명에서 2011년에 65만명으로 증가, 지속적 부흥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55만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였다<표1>.

2-2 일본의 기독교 단체와 신자수, 교단 현황

2017년말 현재 일본의 종교단체수는 216,141개로 신도계 40.6%, 불교계 39.0% 기독교계 4.0%. 기타계 16.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2,3>. 즉 기독교 단체는 8,626개로 타종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신자수는 1억8226만명으로 신도 47.6%, 불교 47.1%, 기타 4.3%, 기독교 1.1%순이다(문화청,종교연감 2018)⁴⁾. 즉 기독교 신자는 1,921,834명으로 1%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카톨릭을 제외할 할 경우 개신교 복음화율이 0.4%(교회수 7,427개, 교역자 9,432명, 신자수 555,167명)로 더욱 낮아진다<표4>.

<표2> 일본의 종교단체 수(법인포함) (2017.12.31현재)

항목	종교단체(종교법인을 포함)						종교법인				
	신사	사원	교회	포교소	기타	합계	신사	사원	교회	포교소	기타
신도계	81060	14	5148	871	603	87696	80902	12	3498	136	196
불교계	33	76946	2022	1773	3608	84382	25	75631	980	107	369
기독교계	-	3	7096	773	754	8626	-	-	3950	5	741
기 타	61	40	17062	17134	1150	35437	57	40	13855	42	318
합 계	81154	77003	31318	20551	6115	216141	80974	75683	22283	290	1623

4) 인구수 1억2000만명에 비해 신자수가 1억8226만명으로 많은 것은 일본의 경우 다신교 형태의 교인이 많아 중복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 출처: 일본 문화청(2018), 종교연감. p.34을 기초로 작성.

<표3> 일본의 종교관련 교사, 신자수 (2017.12.31현재)

항목	교사 수(명)			신자 수(명)	신자비율(%)
	남(외국인)	여(외국인)	계(외국인)		
신도계	45,450 (20)	25,692 (34)	71,142 (54)	86,166,133	47.6
불교계	166,391 (340)	180,495 (251)	355,886 (591)	85,333,050	47.1
기독교계	26,561(2,427)	4,291 (897)	30,582 (3,324)	1,921,834	1.1
기타계	76,649 (139)	122,709 (149)	199,358 (288)	7,743,714	4.3
합 계	315,051(2,926)	342,187 (1,331)	657,238 (4,257)	181,164,731	100.0

* 출처: 일본 문화청(2018), 종교연감. p.35을 기초로 작성

<표4> 일본 기독교(가톨릭,정교회,개신교)의 교세 (2017.12.31현재)

	교회수	교사수(외국인)	신도수	비고
가톨릭	969	1,403	433,813	교사수는 성직자만 포함
정교회	69	40	9,816	
개신교	7,427	9,432	555,167	외국인수는 선교사수
합 계	8,465	10,875	998,796	

* 출처 : 도쿄기독교대학 국제선교센터 일본선교 리서치(2019), p.8로 작성

일본의 개신교 교회의 특징은 에큐메니칼계 교회가 2,204개(21.2%)로 가장 많고, 초교파 선교단체 11.7%, 침례 10.8%, 성결계 8.6%, 개혁장로계 7.9%의 순을 보이며 단위조합 및 무교파 무교회도 17.5%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도 현재 전년대비 교회 회원수의 증감을 보면 에큐메니칼계 교회 -2,695명, 일본루터교단 -548명, 침례계 -898명, 초교파선교단체 -810명, 단위교회(독립계) -1,486명으로 전반적인 감소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개혁장로교만이 235명 증가하였다. 즉 개혁장로교를 제외하고 최근 일본교회의 회원수 및 예배자수가 급감, 성도의 교회이탈 현상이 눈에 띄고, 특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주의 교단외의 교회에서 더욱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도쿄기독교대학 2019. p.12-15).

<표5> 일본 개신교단 교파의 교세 (2017.12.31현재)

교파교단명	교회수	비율(%)	교회회원수	비율(%)	예배자수	비율(%)
에큐메니칼계	2,024	25.3	216,513	36.4	58,278	21.2
루터계	279	3.5	32,768	5.5	7,149	2.6
개혁·장로계	545	6.8	40,913	6.9	21,576	7.9
침례계	891	11.1	56,532	9.5	29,579	10.8
초교파선교단체계	866	10.8	44,530	7.5	32,084	11.7
웨스레안 성결계	863	10.8	57,411	9.7	23,593	8.6
벤티코스테 카리스마계	872	10.9	50,054	8.4	38,135	13.9
기타 계	541	6.8	23,672	4.0	15,440	5.6
단위조합, 무교파, 무교회계	1,122	14.0	71,692	12.1	48,526	17.7
합 계	8,003	100.0	594,085	100.0	274,3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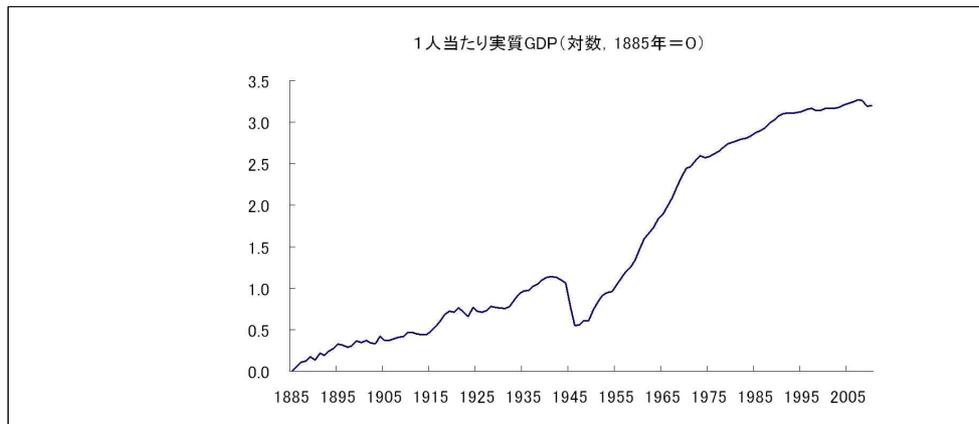
* 출처 : 도쿄기독교대학 국제선교센터 일본선교 리서치(2019), p.11을 기초로 작성

Ⅲ. 한일 거시경제 통계자료 분석

3-1 일본경제의 신화와 실패

그러면 이러한 기독교 인구의 감소는 일본의 경제변화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또 앞으로의 선교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일까? 그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1945년 패전이후 일본경제는 놀랍게 성장하였다. GHQ(연합군사령부) 체제하 재벌해체와 농지개혁 등 경제개혁이 단행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며 군수 물자조달의 특수를 누리며 연평균 10%(1956-73, 연평균 9.2%)의 고도성장을 시작하였고, 도쿄올림픽이 개최된 1964년 시점에 세계 제2위 국민총생산(GNP) 국가로 섰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1달러 360엔 하던 엔화는 1971년에 변동환율제로 전환되며 1달러 90엔대까지 가치가 상승하였다. 1989년을 피크로 도쿄증권거래소 주가지수는 39,000엔까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였다. 세계 관심이 일본에 집중하였다. 주식상호보유제도, 종신고용, 연공서열 임금제, 기업별 노동조합, 장기적 거래관행, 메인뱅크 시스템 등 일본기업의 경영방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본기업의 장인정신(もの作り)과 기술력이 높게 평가되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稲盛和夫), 혼다모터스의 혼다 소이치로(本田宗一郎)와 같은 CEO의 경영철학과 기업가정신 등을 배우고자 하는 관심도 높아졌다.

<표6>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1885-2005년)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는 호황을 누렸던 버블이 무너지고 경기침체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경기침체로 물가는 제자리 걸음,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잃어버린 10년(失われた10年)'의 불황을 경험하고, 이어 '잃어버린 20년(失われた20年)'을 또 다시 경험하며 세계 제2위 GDP국가 자리를 중국에 내주게 되었다. 또 다음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1990-2017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0.9%를 기록,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3-2 한일 경제 통계자료 분석

본 연구는 1990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일본의 경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이들 변화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일본선교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일본의 최근 주요 경제자료는 <표7>과 같고, 분석을 위해 OECD에서 제공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거시경제 통계자료, 즉 국내총생산(GDP), 1인당국민소득, 경제성장률(%), 수출·수입 교역액,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인터넷이용률 7개 지수를 인용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은 버블경제가 무너진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8년간의 자료를 그래프를 통해 흐름을 살펴보고, 시작년도와 마지막년도의 수치를 표로 비교하여 비율변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5).

<표7> 일본의 주요 경제자료

주요 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백만 명	128.4	128.3	128.2	128.0	127.7	127.5	127.2	126.9
명목GDP	십억 달러	6,205	5,160	4,852	4,381	4,949	4,873	5,006	4,899
1인당 명목GDP	달러	36,978	38,731	39,105	40,392	38,738	38,225	39,364	38,618
실질성장률	%	1.5	2.0	0.2	1.1	1.0	1.7	1.0	0.9
실업률	%	4.4	4.0	3.6	3.4	3.1	2.8	2.4	2.5
소비자물가상승률	%	-0.2	1.7	2.4	0.1	-0.1	0.5	0.9	1.2
재정수지(GDP대비)	%	-8.3	-7.6	-5.4	-3.5	-3.7	-3.4	-3.0	-2.8
총수출	십억 달러	776.6	694.8	699.1	622.0	635.2	688.6	763.5	797.1
(對韓 수출)*	"	64.4	60.0	53.8	45.9	47.5	55.1	-	-
총수입	"	830.1	784.5	799.0	629.4	584.1	644.6	726.8	776.5
(對韓 수입)*	"	38.8	34.7	32.2	25.6	24.4	26.8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53.5	-89.7	-99.9	-7.4	51.1	44.0	36.7	20.5
경상수지	"	60.1	46.4	36.4	134.1	193.7	195.9	210.6	203.5
환율(연평균)	한자국/US\$	86.6	105.3	119.9	120.3	116.8	112.9	113.35	118.62
해외직접투자**	십억달러	122.4	135.0	138.0	138.4	173.9	168.6	103.8	119.5
외국인직접투자**	십억달러	1.8	2.4	19.8	5.2	39.3	18.8	29.7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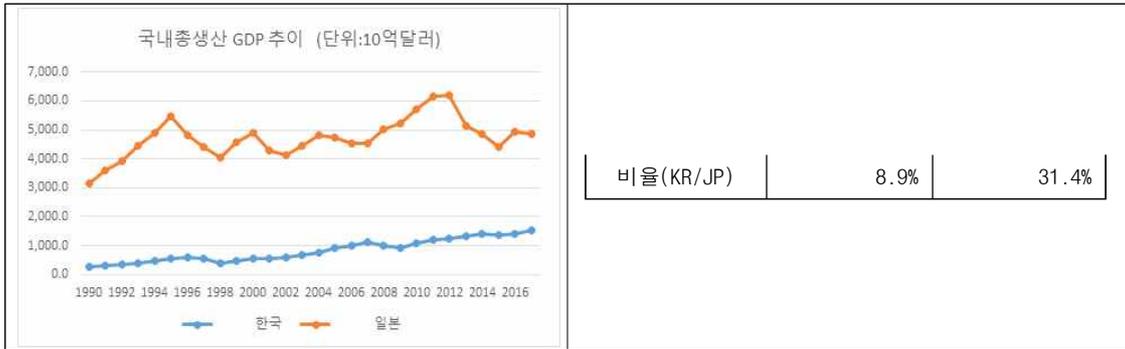
주: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JETRO 직접투자통계
 자료원: IHS Markit Country Report(2018. 8. 21)

* 출처: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2019)

(1) 국내총생산(GDP)

		1990	2017
	한국(KR)	279.3	1,530.2
	일본(JP)	3,132.8	4,8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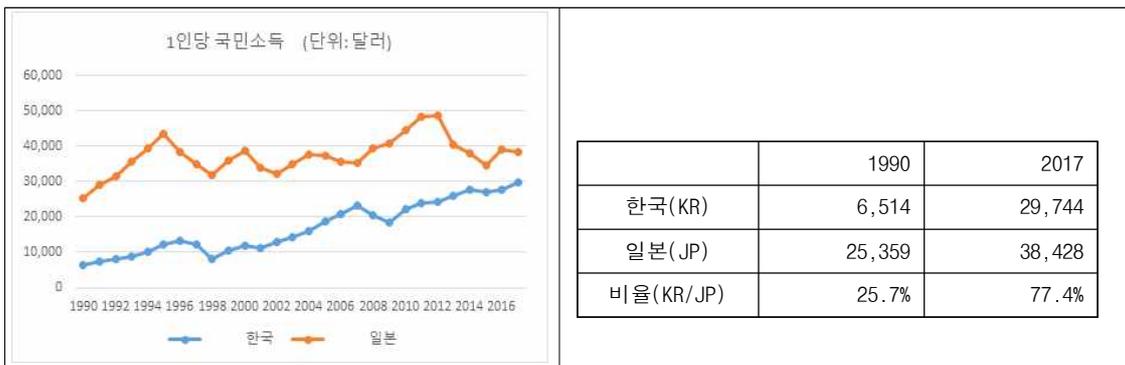
5) 일본 기독교 신자수의 추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1990년 한국의 GDP는 2793억 달러로 일본 3조1328억 달러의 8.9%에 해당하였으나, 2017년은 1조5302억 달러로 일본 4조8721억 달러의 31.4%를 차지하였다. 일본 인구가 한국보다 2배이상 많으므로 동등한 수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1990년 일본의 8.9%이던 규모가 2017년 31.4%으로 상승, 3분의1에 육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1인당 국민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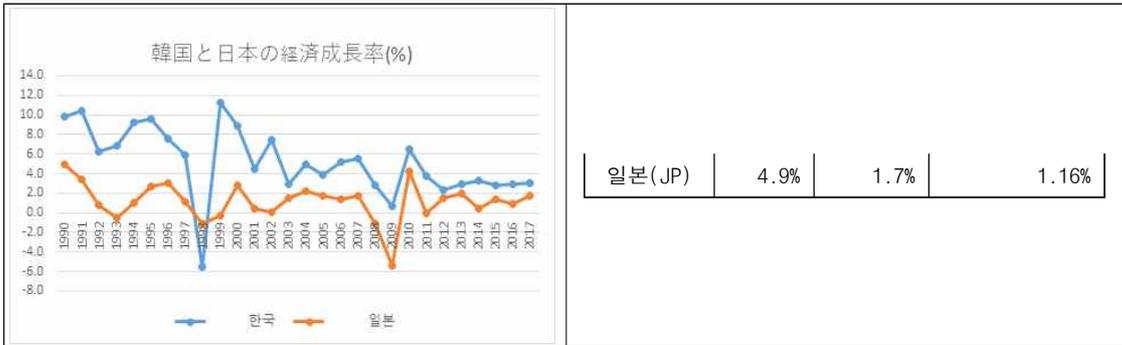
1인당 국민소득은 GDP를 총국민수로 나눈 값으로 한 국가의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1990년 한국의 1인당국민소득은 6,514달러로 일본 23,359달러의 25.68%였으나, 2017년은 29,744달러로 일본 38,428달러의 77.40%를 차지했다. 1990년 일본의 25.5%에 불과하던 1인당국민소득이 2017년 77.4%로 상승하였다.



(3)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rate of economic growth)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1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가 전년도와 비교에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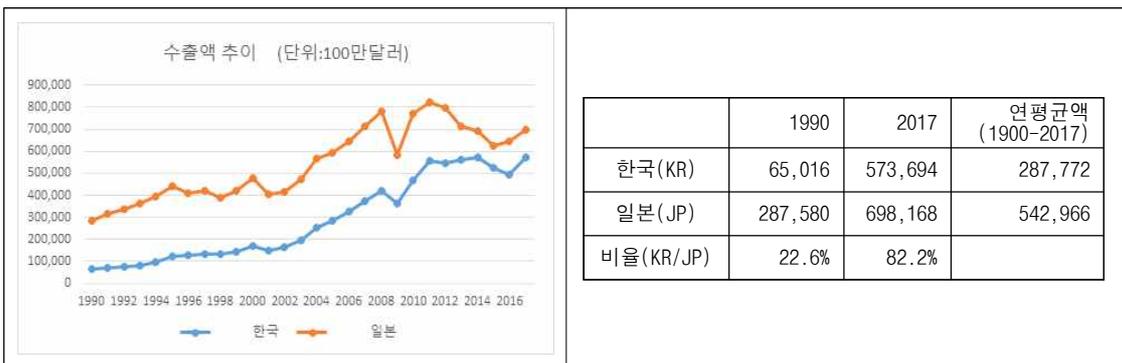
	1990	2017	연평균성장률 (1900-2017)
한국(KR)	9.8%	3.1%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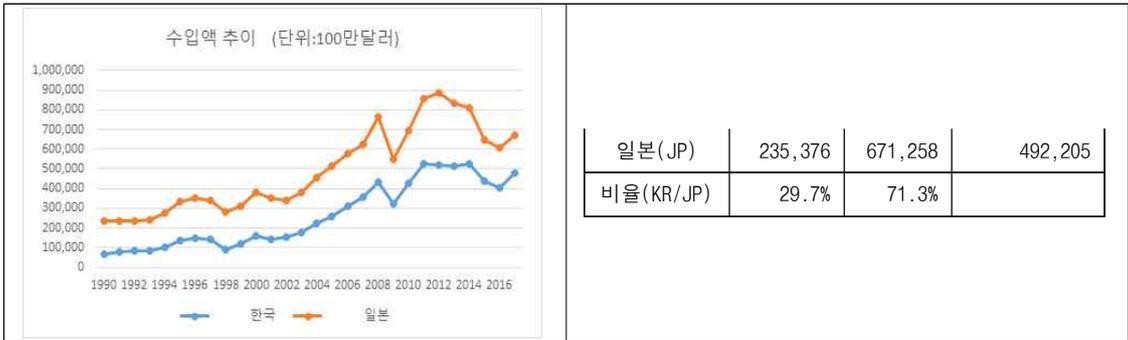
1990년 한국경제는 9.8% 성장하였고 일본은 4.9% 성장하였으며, 2017년은 한국 3.1%, 일본 1.7%로 성장률이 감소하였다. 1990년-2017년 전체 연평균 성장률이 한국 5.19%, 일본 1.16%를 기록했다. 즉 일본이 1950-80년대에 달성한 고도성장이 한국은 1970년-90년대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1997년말에 IMF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는 외환위기가 한국에서 발생, 1997년 GDP가 716조원에서 1998년 677조원으로 감소, 1998년 -5.5%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반대로 일본은 2009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관련해 -5.4% 성장을 나타냈고, 위기시 낮은 수준이지만 상대국에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4) 수출액과 수입액

수출액(amount of export)은 한 나라가 생산하는 전체 제품 중의 해외 수출금액을 말한다. 반대로 수입액(amount of imports)은 외국의 서비스나 물품 등의 재화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1990년 한국의 수출액은 650억 달러로 일본 2875억 달러의 22.6%이었으나, 2017년 한국의 수출액은 5736억 달러로 일본 6981억 달러의 82.1%를 차지했다. 수입액의 경우 1990년 한국 수입액은 698억 달러로 일본 2353억 달러의 29.6%였으나, 2017년 수입액은 4784억 달러로 일본 6712억 달러의 71.2%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이 작은 한국의 경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그 증가가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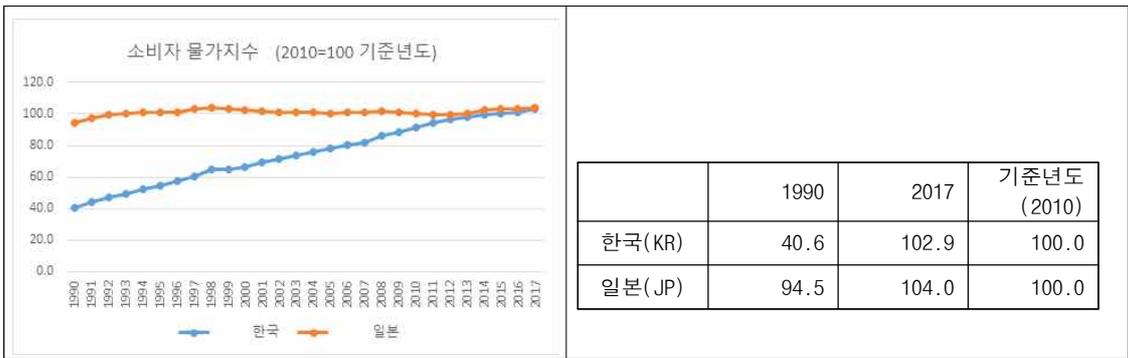
	1990	2017	연평균액 (1990-2017)
한국(KR)	69,844	478,478	265,596



일본 (JP)	235,376	671,258	492,205
비율(KR/JP)	29.7%	71.3%	

(5) 소비자 물가지수(2010년을 100 기준년도로 함)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1990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을 기준(100)으로 할 경우 40.6%, 일본은 94.5%를 기록하였고, 2017년은 한국 102.9%, 일본이 104.0%로 나타났다.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수준으로 높아진 것에 비해, 일본은 이미 성숙단계로 경제성장률이 낮고,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상징하듯이 물가상승률이 낮고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크게 변화를 나타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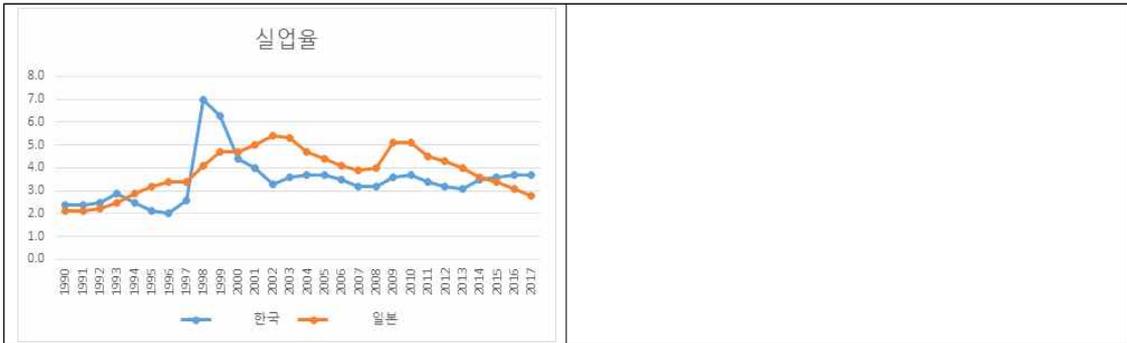


	1990	2017	기준년도 (2010)
한국(KR)	40.6	102.9	100.0
일본(JP)	94.5	104.0	100.0

(6)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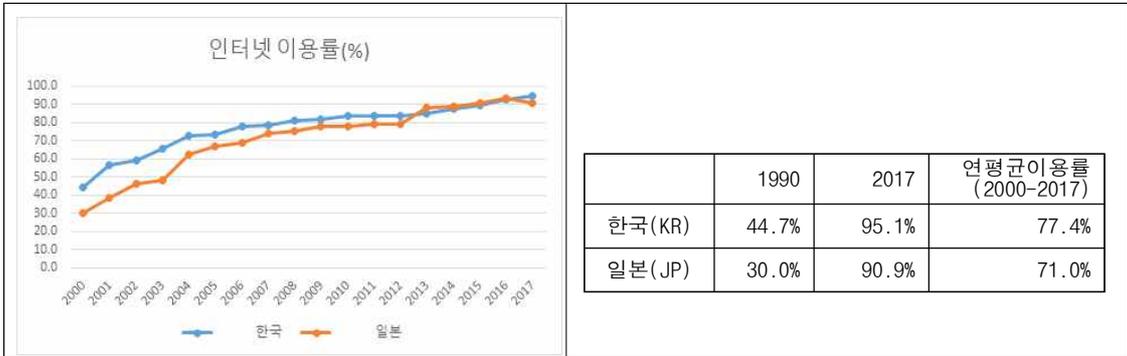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만 15세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990년 한국 실업률은 2.4%, 일본은 2.1%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17년은 한국이 3.7%로 실업률이 다소 높아진 것에 비해 일본이 2.8%로 아베노믹스 경기 부양책의 효과등으로 완전고용 상태에 이르고 있다.

	1990	2017	연평균실업률 (1900-2017)
한국(KR)	2.4%	3.7%	3.5%
일본(JP)	2.1%	2.8%	3.0%



(7)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은 1990년 한국 44.7%, 일본 30.0%이며, 2017년은 한국 95.1%, 일본 90.0%로서 한국이 높은 경향은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양국 모두 IT정보기술 이용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4차산업혁명을 포함,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의 출현이 기대되고 있다.



이상 분석결과를 보면 1990년 이후 일본경제는 버블이 붕괴되고 장기간 불황이 계속되면서, 물가상승이 멈추고 저성장 현상이 일어났을 알 수 있다. 한일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하였으나 일본은 50-80년, 한국은 70-90년대에 높은 성장을 나타냈다. 그리고 한국은 1998년의 외환위기, 일본은 2009년 금융위기를 경험하기는 하였으나, 한국의 후속성장이 이루어지며 GDP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1/3 규모에 가까워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77%, 수출은 82%, 수입은 71% 수준으로 그 차이가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IV. 한일관계의 변화와 선교 전략

4-1 한일 경제의 구조와 관계

한국과 일본의 경제격차가 줄어들며, 앞으로 한일관계의 변화도 예상된다. 당연히 선교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관계를 살펴보면, 1965년 한일 양국은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역사를 넘어 국교를 정상화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한일경제 협회 등 민간 경제계의 노력으로 회담이 성립되고, 일본이 10년에 걸쳐 3억 달러를 한국에 무상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내용의 '한일정부간 재산 청구권 및 경

제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니시노,2015). 이후 한국은 포항종합제철소(POSCO)와 경부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중화학공업 육성 및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성장을 시작하였다. 일제강점의 식민통치와 1950년 전쟁 폐허에서 벗어나 2018년 현재 세계 제12위 GDP 국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1953년 GDP가 19조원으로 원조에 의존해야 했던 최빈국가에서 1980년 163조원, 1990년 419조원, 2000년 820조원, 2010년 1265조원, 2018년 1597조원의 국가로 84배나 성장하였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1988년에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OECD에 가맹하였다. 삼성전자와 같이 연매출액 240조원, 당기순이익 44조원을 창출하는 글로벌기업을 탄생시켰다(6).

<표8> 한일 수출입 교역현황 추이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2011	397	7.1	40.8	683	13.0	6.3	-286
2012	388	7.1	-2.2	644	12.4	-6.8	-256
2013	347	6.2	-10.7	600	11.6	-6.7	-254
2014	322	5.6	-7.2	538	10.2	-10.4	-216
2015	256	4.9	-20.5	459	10.5	-14.7	-203
2016	244	4.9	-4.8	475	11.7	3.5	-231
2017	268	4.7	10.1	551	11.5	16.1	-283
2018(1~10)	254	5.0	16.3	460	10.4	1.2	-206

또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은 지리적인 인접국가로서 서로 의존·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비즈니스를 전개해 왔다. 2018년말 현재 한국은 일본의 3대 수출국이며, 4위 수입국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그리고 수출입 구조가 한국의 대일수출이 254억 달러, 대일수입이 459억 달러로 한국입장에서는 매년 200억 달러를 넘는 무역적자를 반복하고 교역을 진행해 왔다<표8>. 한국은 일본에 철강, 광물성연료, 전자부품, 수송기계, 정밀석유화학 제품등을 수출하고, 반대로 일본으로부터 철강과 전자부품, 정밀기계, 석유화학, 기초산업 수송기계 등을 수입하고 있다. 많은 산업분야가 중복되고, 또 한국이 가공수출하는 제품의 상당 부분이 일본산 소재로서,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일본 수입도 증가하는 구조로, 이것이 한일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되어왔다.

<표9> 한국의 대일본 주요 수출품 (단위: 백만달러, %)

품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1~11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5,577	-20.5	24,355	-4.8	24,354	10.0
철강제품	2,966	-25.0	3,101	4.6	3,558	25.6
광물성연료	3,518	-46.0	2,348	-33.2	2,602	34.0
전자부품	2,194	-8.4	1,963	-10.5	1,562	-10.8

6)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 추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 10억원)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국내총생산(GDP)	19,054.4	27,305.0	67,650.0	163,065.0	419,518.1	820,843.8	1,265,308.0	1,597,514.1
국민총소득(GNI)	22,481.9	32,236.6	79,712.2	177,884.4	486,032.9	864,168.2	1,266,579.8	1,638,879.4

산업용 전자제품	2,199	-23.4	1,472	-33.1	1,376	1.7
수송기계	1,273	-2.1	1,422	11.7	1,429	8.8
정밀화학제품	1,374	-4.6	1,351	-1.7	1,442	16.0
석유화학제품	1,288	-21.0	1,300	0.9	1,474	22.9
금속광물	1,036	-6.7	1,142	10.2	830	-21.2
기계요소 공구 및 금형	948	-14.6	1,072	13.1	1,019	2.4
농산물	973	-11.2	942	-3.2	980	13.7

* 출처: 한국무역협회(2017년 12월 기준)

<표10> 한국의 대일본 주요 수입품 (단위: 백만달러, %)

품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1~11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5,854	-14.7	47,467	3.5	50,170	16.8
전자부품	5,741	-9.5	5,898	2.7	6,114	14.1
철강제품	5,698	-30.5	5,312	-6.8	5,574	15.6
정밀기계	2,680	3.0	4,027	50.3	7,174	108.6
정밀화학제품	3,677	-9.8	3,963	7.8	3,866	7.2
석유화학제품	4,782	-21.7	3,864	-19.2	4,059	16.2
산업용 전자제품	2,607	-8.4	3,212	23.2	2,758	-5.3
기초산업기계	3,132	-12.6	3,091	-1.3	2,958	5.9
수송기계	2,537	-2.9	2,710	6.8	2,581	6.1
플라스틱제품	2,229	-18.7	2,297	3.0	2,164	3.4
산업기계	2,075	-11.6	2,085	0.5	1,970	0.4

* 출처: 한국무역협회(2017년 12월 기준)

즉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의 보상을 포함, 무역불균형의 구조속에서도 서로 의존과 협력, 갈등을 반복하며 양국 경제가 발전하는 관계를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규제 우대조치배제 갈등은 과거사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양국의 기업이 상호의존도를 줄이고 사업 다변화를 도모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양국이 갈등 해소를 위해 윈윈전략을 취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문제는 갈등보다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존중하고 시장논리 위에서 교역을 해 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에 신앙적 관점에서 서로 이해해 가는 관계가 성립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2 일본선교의 전략과 패러다임 변화

2017년말 현재 일본에는 8,620개(4.0%)의 기독교 관련단체가 있다. 또 개신교 단체로 한정하면 7467개 교회, 약55만명(0.4%)의 크리스천 성도가 존재한다. 경제선진국으로 위상을 과시해 오던 일본의 상황으로 보아 교세가 초라한 상황이다. 신도와 불교가 국가정책에 편승해 성장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일본교회와 기독교계가 스스로 새로운 전환점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논문 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17년 많은 성도가 교회에서 이탈하였으며, 특히 복음주의 성경 말씀을 철저히 훈련하지 않는 교회에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일본 교회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⁷⁾. 일본을 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 중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일본 교회와 성도, 목회를 이해하며 돕는 조력이 필요하다. 2017년말 현재 일본에는 98개 재일대한기독교교회(교인수 6,400명, 예배자수 4,300명)가 있다.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일본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역단체는 79개로 1,547명의 선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일본 전역에, 온누리교회는 러브 소나타를 통해, 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동경요한교회는 CCC(대학생선교회) 순모임 방식을 통해 일본에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여 왔다(이선복, 2007).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방식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 격차, 엔고현상 등으로 인해 제한된 투자와 사역 내에서 전도가 이루어졌다. 소규모 단위의 교회개혁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1989년 버블경제 붕괴이후 한일 양국의 경제지표 차이는 상당부분을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또 일본교회는 상호협력의 관점에서 문을 개방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해 갔으면 한다.

첫째, 일본 현지에 한인교회를 개척할 경우 경제차이에서 오는 기존의 위축된 마인드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세로 선교를 한다. 영성을 회복하고, 철저히 기도하며 예배가운데로 나아가되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현지 선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병원, 학교, 교육시설, IT기술 등 필요한 선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교류를 병행한 전도,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둘째, 제자훈련을 포함, 일본교회와 목회자를 간접적으로 돕는 일에 힘을 쏟는다. 현재 일본에는 규모가 작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가 매우 많고, 목회자가 고령화 되었거나 심지어 설교할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도 많다. 이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길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형교회 전략적 재정 지원은 물론 보내는 선교사 개인의 작은 후원도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 비해 일본은 선진국으로 선교후원금을 보내도 성과가 미흡할 것이란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 엔고현상과 경제지표에 대한 차이가 줄어들며 이제 일본에서도 이러한 재정후원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⁸⁾. 셋째, 선교후원 및 협력을 받아 드리는 일본교회의 이해와 시선이다. 1945년 패전이후 1989년까지 일본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하였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세계 제2위 GDP국가가 되고, 각종 경제신화를 바탕으로 Japan as No.1이라는 캐치 프레이어 자부심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러한 자부심은 오히려 선교의 걸림돌이 되었다. 미국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아시아 선교사들이 자리를 대체하려고 했을 때 일종의 우월감이 작용하였다. 이제는 한일 양국 모든 교회의 목회자 및 선교사들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되고, 일본선교의

7)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종교현황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개신교)인구는 967만명으로 전체의 19%이다.

8) 참고로 선교자료로 일본가정의 가계지출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인은 1인 1개월 10만 엔을 소비한다. 1세대당 금융자산 1820만엔이다. 40대미만은 574만엔, 40대 1056만엔, 50대 1802만엔, 60대 2312만엔, 70대 2446만엔으로 젊을수록 금융자산이 적고, 고령자일수록 많다. 금융부채는 40대미만 1098만엔, 40대 1047만엔, 50대 591만엔, 60대 220만엔, 70대 90만엔으로 그 반대이다. 일본의 인구는 1억2700명, 15세이상 경제산업인구는 1억1100만명, 그중 노동력인구는 약 60%으로 6800만명이다. 실업율이 3%미만, 청년실업율 5% 수준의 완전고용 상태이다. 급여액은 5인이상 사업장 월315,590엔(일반 412,174엔, 파트타임 97,636엔), 30인이상 사업장 361,593엔(일반 447,663엔, 파트타임 108,800엔)이다.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서로 협력하여 비전의 꿈을 나아갈 때이다.

‘크리스찬 정보북 2018’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 일본전국 개신교 교회수는 7,896개(전년대비 14개 감소)로 1교회당 평균 회원수는 62.4명(0.2%감소), 평균 예배자수는 39.2명(0.2%감소)이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형교회는 거의 없고, 작은 형태의 교회가 많다. 교회가 증가한 지역은 홋카이도 2개, 중국·시코쿠 2개 2지역이고, 감소한 곳은 관동 12개, 중부 3개, 큐슈·오키나와 2개, 킨키 1개 지역에서 각각 감소했다. 또한 현별로 평균 교회회원수를 보면 도쿄 110.3명, 카나가와현 87.9명, 오사카부 80.5명 등 대도시 중심부가 많고, 후쿠시마현 31.0명, 이와테현 31.1명, 아오모리현 31.5명을 시골로 갈수록 인원이 감소했다. 평균 예배자수는 도쿄도가 64.5명으로 가장 많고, 시마네현이 16.0명으로 가장 적었다. 즉 운영자체도 어려운 미자립교회가 많은 상황이며, 또 이러한 교회의 영세성이 목회자의 부재에 따른 무목교회(無牧教會)의 증가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크리스천신문,2018)⁹⁾.

마태복음 28:19-20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지상명령이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후 40일동안 계시며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 이를 받아 드리는 무리의 수가 증가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었다. 또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바울사도 또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하여, 로마를 포함 여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동향을 살펴본 후 1990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OECD가 제공한 28년간의 한일 경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한일관계와 이들 변화가 선교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1549년 예수회소속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복음을 전래, 도쿠가와 막부시대의 박해를 거치고, 메이지정부 근대화 과정인 1859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장로 개혁교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등 교단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개신교 신자수는 약5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0.4%에 불과하고, 1948년 약20만명이었던 신자수가 2011년에 65만명으로 증가, 부흥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7년 55만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또한 1989년 버블경제 붕괴이후 한일의 경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선교와의 관련성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¹⁰⁾.

9) 부산고백교회 김산덕목사의 경우 일본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호도스 신학원을 개설, 현지 목회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후쿠오카와 간사이 지역등에 목회자를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10) 일본은 2013년에 추진한 1단계 아베노믹스(①질적 양적 금융완화, ②신속한 재정정책, ③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에 이어, 2015년부터 2단계 정책으로 ①강한 경제(2020년 GDP600조엔 달성), ②육아지원(출산율 목표 1.8명), ③안심 사회보장(50년후 인구 1억명유지)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19년 레이와 천황 즉위의 신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으로 4차산업혁명 (AI인공지능, IOT,

첫째, 1990년 한국의 GDP는 2793억 달러로 일본 3조1328억 달러의 8.9%였으나, 2017년은 1조5302억 달러로 일본 4조8721억 달러의 31.4%로 상승하였다. 둘째, 1990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6,514달러로 일본 23,359달러의 25.68%였으나, 2017년은 29,744달러로 일본 38,428달러의 77.40%를 차지하였다. 셋째, 199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9.8%, 일본은 4.9%이었으며, 2017년은 한국 3.1%, 일본 1.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1990년-2017년 전체 연평균 성장률은 한국 5.19%, 일본 1.16%을 기록하였다. 즉 일본이 최근 20년간 성장이 멈춘 것에 비해, 한국은 감소추이 속에서도 상승을 보이며 양국의 격차를 줄였다. 넷째, 1990년 한국의 수출액은 650억 달러로 일본 2875억 달러의 22.6%이었으나, 2017년 한국의 수출액은 5736억 달러로 일본 6981억 달러의 82.1%를 차지했다. 수입액의 경우 1990년 한국은 698억 달러로 일본 2353억 달러의 29.6%였으나, 2017년 수입액은 4784억 달러로 일본 6712억 달러의 71.2%에 이르렀다.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이 작은 한국의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1990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0년을 기준(100)으로 할 경우 40.6%, 일본은 94.5%를 기록하였고, 2017년은 한국 102.9%, 일본이 104.0%로 나타났다.

즉 한국이 조사대상 기간 중 한국 5.19%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함께 2배의 물가상승을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수준으로 높아진 것에 비해, 일본은 이미 성숙단계로 성장률이 1.16%로 낮음은 물론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수준 차이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 한일간 무역관계에서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의 기업이 협력·의존관계를 유지하여 발전해 왔으나, 한국측에 매년 200억달러에 해당하는 적자가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가 있었다. 또 그 원인은 한국기업이 일본의 반도체 등 부품소재를 구입,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방식을 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기업으로 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가 발견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 국가이다. 따라서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거 역사와 영토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때가 많다. 그러나 미래 지향적 관계를 갖자는 원칙에는 양국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양국의 역사·정치 이해관계를 넘어 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한일교회 및 선교활동 교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예수님께서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스라엘 전통의 십계명 윤리를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며, 자신이 그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 바울사도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선교전략에서 한일 경제차이가 감소한 만큼 한국교회가 기존의 제한적인 선교마인드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재정후원을 하고, 목회자 영성 제자훈련, 소그룹 모

자율주행), 저출산고령화 대비 출산율 1.8명목표, 10월 소비세 10%인상,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 활용 비즈니스, 2020년 도쿄올림픽 및 외국인 관광객 8000만명 인바운드 소비 8조엔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임, 병원 학교 IT 전도 인프라 구축, 무목교회 지원 등 효과적 전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면한다. 또한 일본교회도 전도에 걸림돌이 된 기존 경제선진국으로서의 국민적 자부심을 넘어 영세한 일본교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선교협력 마인드를 오픈하고, 또 함께 영적성숙에 실현 선교비전을 이루어 갈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산덕역(2019), 『일본의 정신과 기독교(상)』, 하영인
- 니시노 준야(2015),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일본비평, Vol.12, pp. 50-71,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민경배(2007), 『한국 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상규(2007),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고신대학교 출판부
- 이선복(2007), “일본어를 이용한 대학체플의 개설가능성과 도입성과”, 일본문화연구
- _____ (2015), “복식부기 교회회계의 가능성과 패러다임 변화”,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1-12
- _____ (2019), 성경적 관점에서 본 회계윤리”, 로고스경영연구 제17권 제1호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2019),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I 일본”, KOTRA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2019), “2018년 12월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 KWMA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한국측위원회(2007), 『근현대 한일관계 연표』, 경인문화사
- 五野井隆史(2006), 『日本キリスト教史』 吉川弘文館
- 今橋朗·徳善義和(2003), 『キリスト教の教派』 キリスト新聞社
- 青野太潮(2004), 『十字架につけられ給ひしままなるキリスト』 コイノニア社
- 塚崎公義(2010), 『日本經濟入門』 河出書房新社

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19.10.26)

文化庁(2018), 『宗教年鑑』 文化庁

東京基督教大学 国際宣教センター 日本宣教リサーチ(2019), 『調査レポート(2018年度)』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www.kotra.or.kr>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G01&conn_path=I3

クリスチャン新聞 <https://クリスチャン新聞.com/?p=18159>